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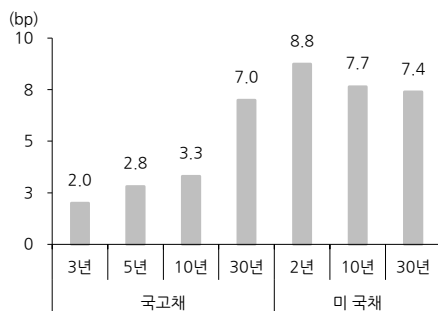
FI Weekly

금통위 프리뷰: 만장일치 인상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เครดิต 한시화 shhan1229@hanwha.com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한미 국채 금리 변동



주간 금리 예상 Range

금리, 스프레드	전주(7/10)	예상 Range	방향성
국고 3년	3.77%	3.70~3.83%	약보합
국고 5년	4.01%	3.95~4.05%	약보합
국고 10년	4.23%	4.20~4.33%	약보합
국고 10-3년	46.2bp	43.0~50.0bp	약보합
미국 10년	4.56%	4.48~4.60%	강보합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7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은 100%

기존 기준금리 만장일치 인상(2.75%, +25bp) 전망 유지. 악화된 물가 환경은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너무 높이 상승. 지금이 고점이고, 둔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대응은 불가피. 환율의 추가 강세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급환경 변화에 기인

이란 전쟁은 최악의 국면을 통과했고, 에너지 가격도 하락. 여기에 반도체 사이클 호조는 이어지는 중.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공산이 커 보임. 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환율 가치는 소폭이나마 회복. 그러나 이것이 7월 이후 인상 횟수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명분으로는 부족. 훼손된 중동지역 공급망과 에너지 인프라 복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측면 물가 압력도 무시할 수 없음.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내외금리차 축소가 필수적

지난 달 시장의 공격적인 전망에 대해 총재는 “시장이 힘들 때는 이러한 전망이 나올 수 있으며, 시장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 총재의 발언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단기적인 물가와 외환시장 환경 개선이 당초 계획 중인 통화정책 경로를 바꿀 수는 없다고도 해석 가능. 7월 금통위는 전반적으로 강경한 색채를 보일 것으로 예상

수요 우위 발행시장

회사채 발행시장은 고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 위축세가 지속. 기업들이 회사채 대신 은행 대출 등 대체 조달수단을 활용하면서 발행 물량이 감소했고, 2026년 6월 누적 기준 약 6.0조원의 순상환을 기록. 현재 시장은 차환 및 운영자금 수요가 있거나 수요예측 흥행 가능성이 높은 우량 발행사 중심으로 공급이 제한되는 모습

다만, 실제 수요예측 성과는 견조. 2026년 수요예측 단순 경쟁률 평균은 6배로 지난 3년간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 증액 발행도 이어지고 있음. 올해 발행조건이 확정된 무보증사채 모집예정액은 총 19.2조원이었으나 실제 발행액은 31.0조원으로 계획 대비 61.4% 증액. 발행금리 역시 대체로 민평금리 대비 낮은 수준에서 결정. 262개 트랜치 중 165건(63%)이 언더, 34건(13%)이 파, 63건(24%)이 오버로 확정. 언더 발행 비중이 오버의 2.6배에 달해 견조한 투자수요가 가격에도 반영됨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I. 채권시장 전망

1. 채권: 기준금리 만장일치 인상

7월 금통위:
만장일치 기준금리
인상 전망

기준 7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만장일치 인상(2.75%, +25bp) 전망을 유지한다. 악화 된 물가 환경은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너무 높이 올라왔다. 지금이 고점 이고, 앞으로 둔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대응은 불가피하다. 환율 이 최근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 총재의 언급처럼 추가 강세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겠지 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급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관전 포인트
1)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금번 회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1)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과 2) 추가 인상 시점 및 긴축 속도 관련 시그널로 판단한다. 이란 전쟁은 최악의 국면을 통과했고, 에너지 가격도 하락했다. 여기에 반도체 사이클 호조는 이어지는 중이다.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공산이 커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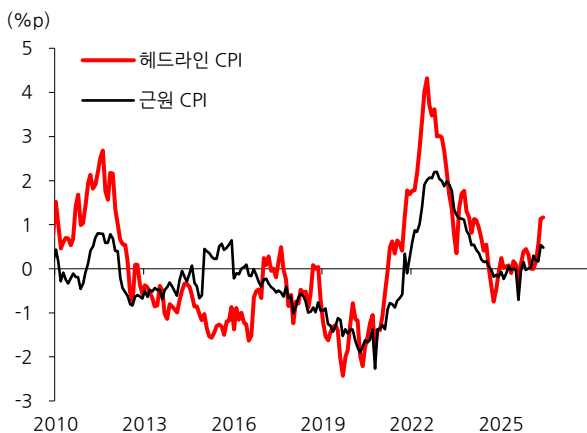
2) 통화정책 조정
페이스

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환율 가치는 소폭이나마 회복되었다. 그 러나 이것이 7월 이후 인상 횟수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명분은 되지 못한다. 훼손된 중 동지역 공급망과 에너지 인프라 복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측면 물가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내외금리차 축소가 필수적이다.

강경한 색채의
금통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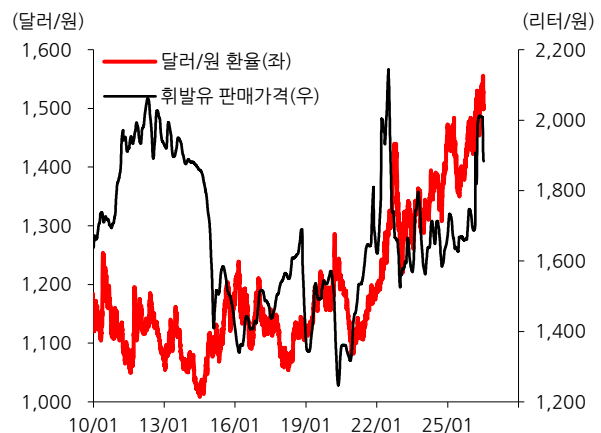
지난 달 빅 스텝과 같은 시장의 공격적인 전망에 대해 총재는 “시장이 힘들 때는 이러 한 전망이 나올 수 있으며, 시장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 고 답한 바 있다. 총재의 발언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단기적인 물가와 외환시장 환경 개 선이 당초 계획 중인 통화정책 경로를 바꿀 수는 없다고도 해석해볼 수 있다. 7월 금통 위는 전반적으로 강경한 색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지금이 정점이라해도 물가는 너무 오랫동안, 높이 상승



주: 목표 물가(2%) 대비 주요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환율, 휘발유 가격 정상화까지도 시간 필요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크레딧: 수요 우위 발행시장

회사채 발행시장 위축

회사채 발행시장은 고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이 회사채 대신 은행 대출 등 대체 조달수단을 활용하면서 발행 물량이 감소했고, 2026년 6월 누적 기준 약 6.0조원의 순상환을 기록했다. 특히 비우량등급의 발행 부진이 두드러졌다. 현재 시장은 차환 및 운영자금 수요가 있거나 수요예측 흥행 가능성이 높은 우량 발행사 중심으로 공급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수요예측 성과는 견조

다만, 실제 수요예측 성과는 견조하다. 2026년 수요예측 단순 경쟁률 평균은 6배로 지난 3년간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증액 발행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발행조건이 확정된 무보증사채 모집예정액은 총 19.2조원이었으나 실제 발행액은 31.0조원으로 계획 대비 61.4% 증액됐다. 발행금리 역시 대체로 민평금리 대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262개 트랜치 중 165건(63%)이 언더, 34건(13%)이 파, 63건(24%)이 오버로 확정됐다. 언더 발행 비중이 오버의 2.6배에 달해 견조한 투자수요가 가격에도 반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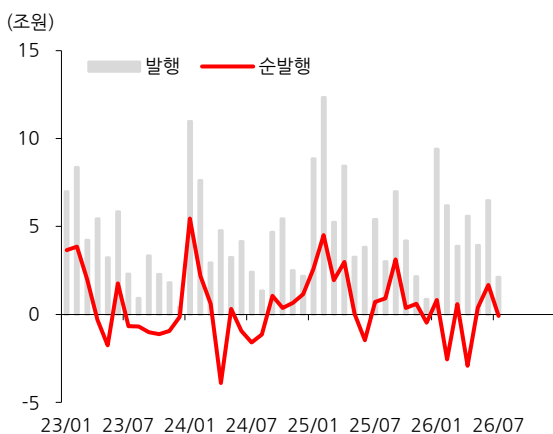
우량등급 회사채 발행 65% 증액

신용등급별로는 AA급 회사채의 발행액이 22.9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집예정액 대비 66.1% 증액돼 등급별 증액률도 가장 높았다. AAA급은 발행 건수가 6개 트랜치에 그쳤으나, 실제 발행액은 모집예정액보다 65.5% 증가해 AA급에 준하는 증액 성과를 기록했다.

가격은 종목별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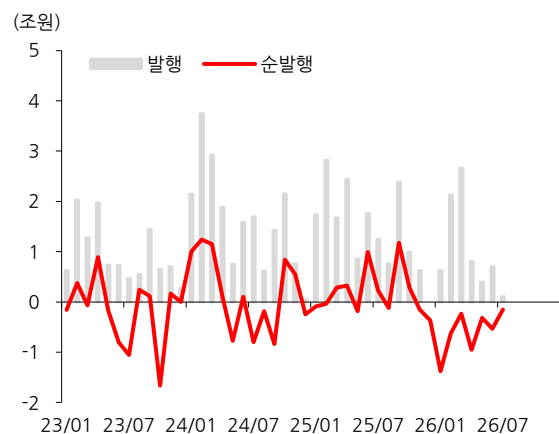
다만, 우량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가격 우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언더로 발행된 종목은 평균적으로 민평금리 대비 7bp가량 낮은 수준에 결정됐으나, 오버 발행 종목의 결정 스프레드는 AAA등급 +12.8bp, AA등급 +10.9bp를 기록했다. 오버발행 종목에 요구된 가산금리 폭이 언더발행 종목의 절감 폭을 상회해, 우량등급 내에서도 종목별 선호 차이가 가격 결정에 뚜렷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등급은 언더와 오버 결정 스프레드가 모두 15bp 내외로 확대돼 개별 크레딧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그림3] 우량등급 회사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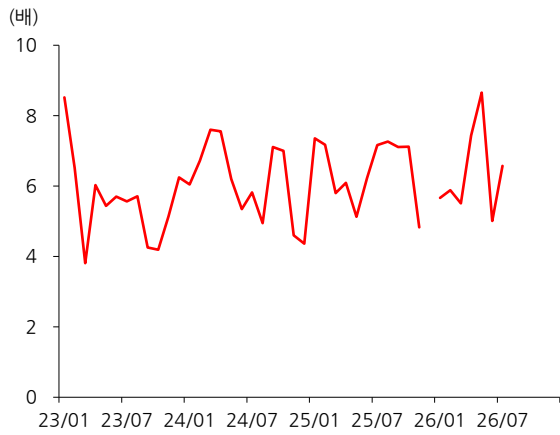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비우량등급 회사채 순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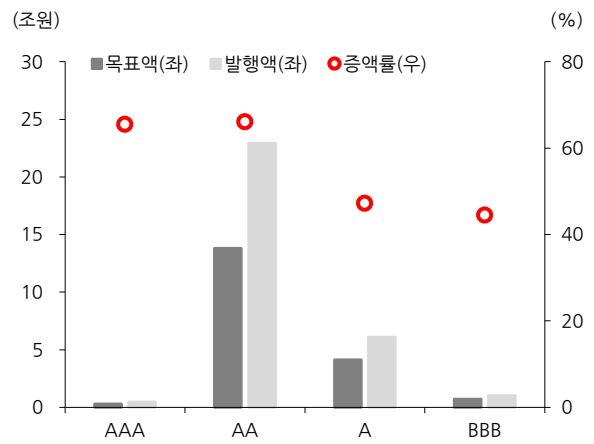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수요예측 단순 경쟁률 평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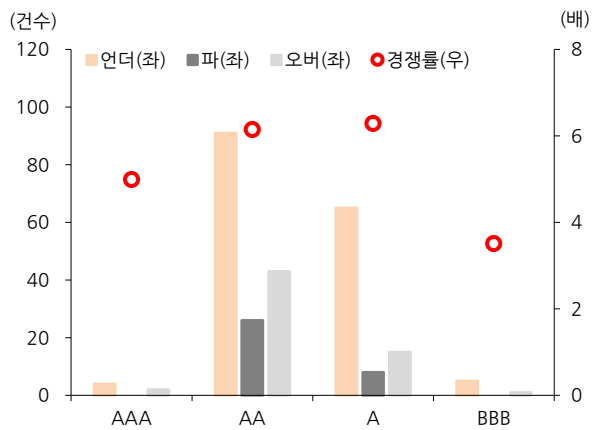
자료: Dar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신용등급별 회사채 발행 규모



자료: Dar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결정 수준



자료: Dar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신용등급별 평균 결정 스프레드



자료: Dar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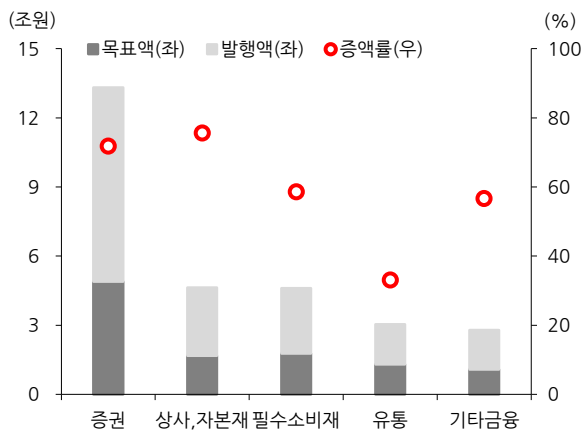
증권, 방산 업종
민평 대비 7~8bp
언더 발행

업종별 수요예측 결과도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발행액은 증권 업종이 8.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사·자본재 3.0조원, 필수소비재 2.8조원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진 증권 업종과 방산 관련 기업이 포함된 상사·자본재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수요가 확인됐다. 각각 언더 발행 종목의 평균 결정 스프레드가 -7bp, -8bp로 민평금리를 하회했다. 특히 증권 업종은 오버발행 종목의 평균 가산금리도 +4.3bp에 그쳐, 오버발행 시에도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소재, 건설, 유통 등
일부 업종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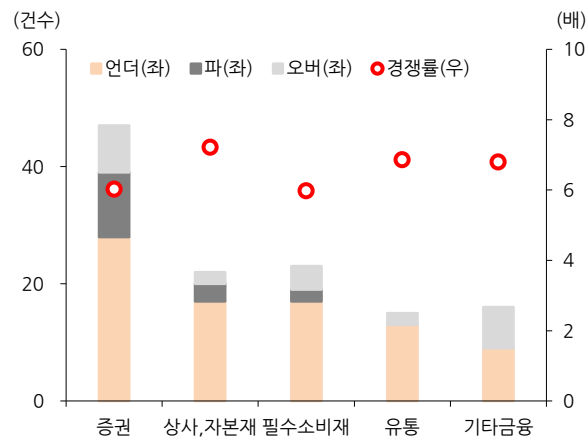
반면, 화학, 에너지 등 소재 관련 업종과 건설, 유통 등 일부 업종의 결과는 부진했다. 화학은 오버 발행 종목의 결정 스프레드가 발행액 가중 기준 +34.9bp로 전 업종에서 가장 높았고, 증액률도 58%로 시장 평균을 하회했다. 에너지는 증액률이 41%에 그쳤다. 부진은 SK지오센트릭 등 석유화학 익스포저가 큰 발행사에 집중됐다. 지난해 이후 관련 업종의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 하향 조정이 이어지며 크레딧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메리트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9] 발행 상위 5개 업종 회사채 발행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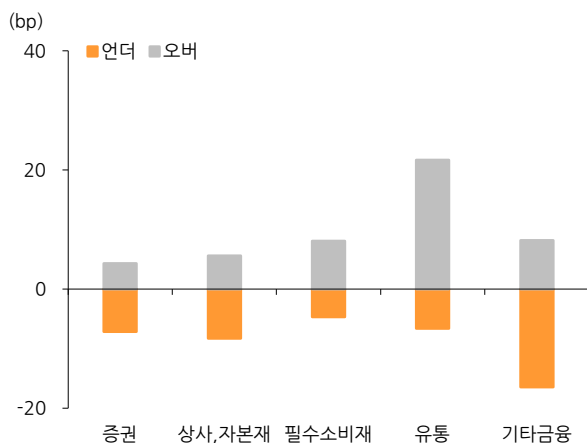
자료: Dar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발행 상위 5개 업종 회사채 발행금리 결정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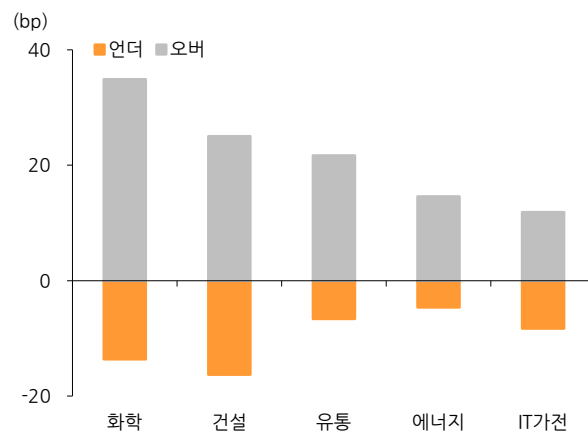
자료: Dar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발행 상위 5개 업종 평균 발행금리 스프레드



자료: Dar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일부 업종 수요예측 성과 미진



자료: Dar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전략: 통화정책 기대 약화, 금리 상승 예상

국고 3년: 3.70~3.83%
국고 10년: 4.20~4.33%

이번주 국고채 금리 밴드는 3년, 10년 각각 3.70~3.83%, 4.18~4.30%를 제시한다. 장단기 스프레드는 소폭 확대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시 불확실해진 중동 정세가 금리 하단을 공고하게 다지는 가운데, 7월 금통위는 매파적으로 해석되겠지만 유의미한 금리 상승 재료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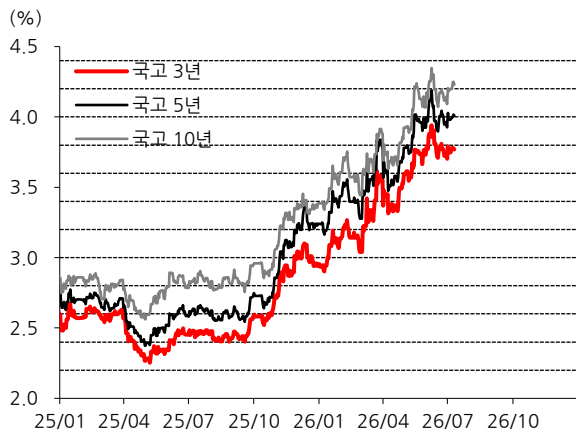
금통위는 매파적이겠지만
이미 시장금리는
상당부분 반영

이미 시장금리는 7월 기준금리 인상과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상당부분 반영해 높은 상태다. 국고 3년 금리가 3.80% 중반대를 상회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성장에 대한 한국은행 견해에 따라 10년 금리는 4.30%를 웃돌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강경한 한국은행 기조와 별개로 시장금리는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10년,
6월 CPI 결과에 따라
4.50% 하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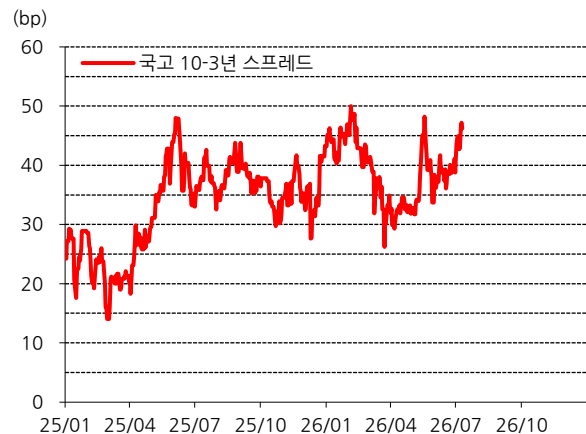
미국은 14일 발표 예정인 6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 달처럼 3%대 밑에서 머무른다면 금리는 그간의 상승 폭을 부분적으로나마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만 하더라도 미국 10년 금리는 재차 4.50%를 밑돌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13] 주요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국고 10-3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예상 금리 Range					
금리, 스프레드	동향(대비)			예상 Range	방향성
	연초	월초	전주(7/10)		
국고 3년	2.95%(+81.5bp)	3.79%(-2.3bp)	3.77%(+2.0bp)	3.70~3.83%	약보합
국고 5년	3.24%(+76.8bp)	4.00%(-2.0bp)	4.01%(+2.8bp)	3.95~4.05%	약보합
국고 10년	3.39%(+84.5bp)	4.17%(+2.5bp)	4.23%(+3.3bp)	4.20~4.33%	약보합
국고 10-3년	43.2bp(+3.0bp)	38.4bp(+4.8bp)	46.2bp(+1.3bp)	43.0~50.0bp	약보합
미국 10년	4.17%(+39.5bp)	4.45%(+8.3bp)	4.56%(+7.7bp)	4.48~4.60%	강보합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통화정책 Tracker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7/6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	온건파, O	- 포워드 가이드언스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한다면 2021년 말과 같이 유용한 정책 도구로 활용 가능 - 다만, 그 메시지가 지나치게 강력하거나 신중(too strong or rigid)하다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경제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든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운영자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릴 때에도 문제 - 연준은 언제나 2% 물가 목표를 고수해왔으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 - 고용시장은 안정을 찾은 모습이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 리스크의 균형이 역전되었기 때문에 정책 접근 방식도 변화 중 - Warsh 의장은 2% 물가 목표와 관련해 단 한 번도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 - 정책 반응 함수가 적절하게 작동(defined reaction function)한다면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음 - 연준은 부채를 활용한 정부의 재정정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 - 물가의 목표 범위(range)에 대해서는 논의해보는 것이 합리적 - 본인은 물가가 2%라는 레벨이 아닌 그 부근의 범위 안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 그러나 목표 레벨 자체를 바꾸는 것은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 - 정확한 물가 레벨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음(too extreme standard)
7/7	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	-	- 금융안정 관련 기존 리스크들이 연쇄적으로 현실화(crystallise simultaneously)될 수 있는 점을 우려 중 - 낙관적인 주가 밸류에이션(stretch in equity valuation)은 AI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여러 산업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risk of sharp correction)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
7/7	John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	중립, O	- 미국 경제는 추세적으로 꾸준히 성장(steady trend) 중. 고용시장은 안정을 찾은 모습 - 에너지 가격 하락은 긍정적인 소식. 다만, 추가 진전과 함께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야 함. 현재 물가는 매우 높은 수준(still quite high) - 관세 관련 충격은 지금이 정점인 것으로 판단 - 통화정책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준(well positioned, good place)에 위치. 정책의 조정 여부는 리스크와 데이터 흐름에 달려있음 - 고용시장 리스크는 균형을 찾은 모습(pretty balanced) -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본인의 단기 물가 전망은 조금 낙관적으로 조정 - AI 관련 투자는 강력한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 -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언스를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explicit guidance not appropriate)
7/9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	- 기준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2.50% 수준에서 유지해왔는데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성장세가 견조한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개선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 - 물가확산지수가 코로나19 때를 제외하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 - 환율은 중동지역 리스크로 약세가 이어진 데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겹치면서 주요국 통화보다 절하 폭이 크게 나타났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 차입 여건과 국내 외화유동성은 양호 - 향후 주가는 AI 산업 관련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 등의 영향을 받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큼. 그러나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감안하면 주가가 추세적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제한적 - 그간 높아진 비용 상승의 파급이 당분간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가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 -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실물 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 - 금융,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 등 금융 불균형 누증 등은 불안 요인 -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고, 기본적인 경제 틀에서 보았을 때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는 상당 부분 존재 - 현 성장률 전망치인 2.6%에는 상승 압력이 있음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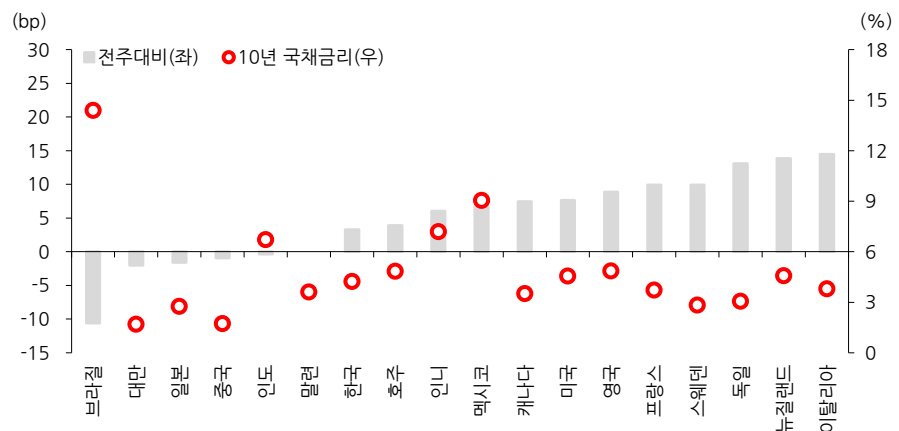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7/9	John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	중립, 0	-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보다는 결제 수단에 더 가까움.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낸 리스크는 예상했던 것 보다 크지 않음 - 스테이블코인은 단기자금시장을 대체하고 있지 않으며, 은행 예금 시스템에도 위협이 아님 -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준비금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현 시점에서 예측 불가 - 연준의 풍부한 준비금 시스템(ample reserve system)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스테이블코인 관련 영향에도 대응 가능 - 준비금 수요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와 이해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 - 유동성 규제 개정은 은행의 안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할 일 - 정확히 연준이 얼마나 대차대조표를 축소시켜야 하는지는 불명확. 대차대조표 정책이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서는 안됨. 반대로 규제의 변화가 대차대조표 정책의 대응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 - 대차대조표 정책의 목적은 금리 조정 - 물가는 상당히 매우 높은 수준(far too high) - 유가가 향후 6~12개월 동안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은 합리적 - 통화정책은 에너지 가격에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관세 관련 물가 압력은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 AI 관련 투자는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 - AI 관련 요인들이 계속해서 물가에 영향을 주면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AI 투자는 공급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생산성 개선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나, 그 시점이 의문 - 물가는 특정 품목이 아니라 기초적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기술적 조정을 통해 PCE와 CPI 간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 - 통화정책이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 - 고용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held up remarkably well). 현재 리스크는 물가 쪽으로 치우쳐 있음 - 지금도 장기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 - 풍부한 준비금(ample reserve)은 특정 규모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 - 상설 레포창구 이용은 일상적 업무(as business as usual)로 인식되어야 함. 중앙 청산 시스템은 여러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실질 임금 상승세는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 요인(modestly disinflationary) - 연준에 개설된 재무부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재무부의 재량. 통화정책 관점에서 재무부의 계좌 관리에 걱정할 것이 아님 -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 TF 일정은 매우 공격적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II.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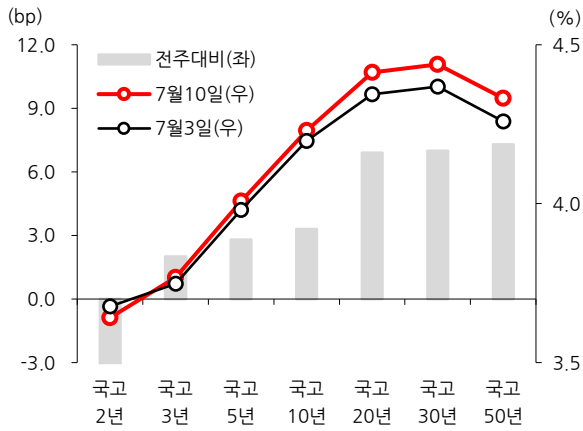
선진국 금리: 대부분 상승	선진국 국채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약세 마감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평가와 미국발 금리 상승 동조가 핵심 배경이었으며, 주 초 발표된 센틱스 투자자신뢰지수 개선이 안전자산 수요를 위축시키며 금리 상승 압력을 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금리: 상승	미국 국채시장은 지정학·수급·통화정책 요인이 중첩되며 10년 금리가 4.5%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 재개와 유가 급등이 겹치며 10년 금리가 주중 고점인 4.58%까지 상승했다. 6월 FOMC 의사록에서는 위원들이 대체로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위험이 상방으로 기울어 있다고 평가되면서 금리 상승세를 지지했다.
신흥국 금리: 국가별 차별화	신흥국 국채시장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튀르키예 시장은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며 만성적인 인플레이션·리라화 불안이 재차 부각되었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도 미국 금리 상승과 유가 급등발 위험회피에 동조하며 약세를 기록했다. 반면, 브라질 시장은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금리 상승세에 따른 따른 되돌림과 함께 고금리 통화에 대한 캐리 수요가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된 점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국고채 금리: 대부분 상승	국고채 금리는 2년 구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 상승 마감했다. 미·이란 충돌 재점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금리 상승이 장기물 약세를 주도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량 순매도가 약세 압력을 더했다.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2.0bp, 3.3bp 상승한 3.77%, 4.23%를 기록했다.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크레딧시장은 스프레드가 완만하게 확대되었다. 지정학 리스크 재부각과 금통위 경계감이 위험 프리미엄을 소폭 끌어올렸으나, 글로벌 크레딧 선호와 마찬가지로 국내 스프레드의 확대 폭도 완만한 수준에 그쳤다. 국고 3년 대비 동일 만기 회사채 AA- 스프레드는 전주 대비 0.9bp 확대된 69.9bp를 기록했다.

[그림15]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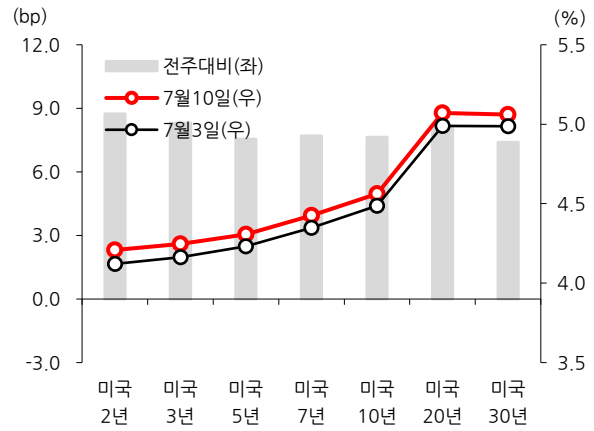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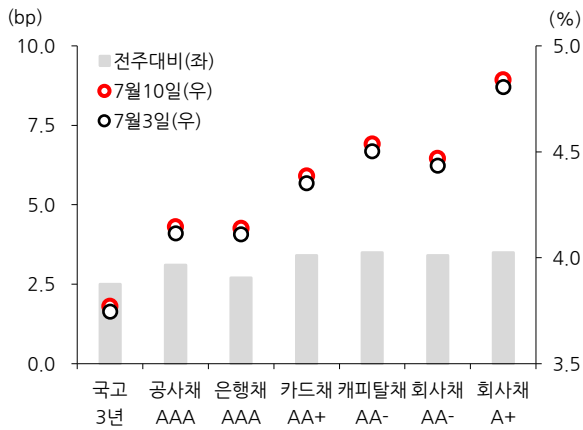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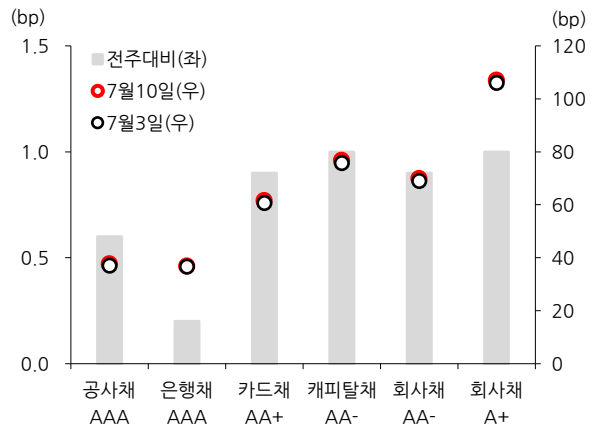
[그림18] 주간 주요 크레딧 금리 변동



주: 민평 3사 기준 3년 만기 금리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주간 주요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주: 민평 3사 기준. 스프레드는 국고 3년에서 동일만기 금리를 차감한 값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채권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직전등급	전망	변경등급	전망	평가사

주: 무보증/공모 회사 및 금융채

자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기업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직전등급	전망	변경등급	전망	평가사

자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Ⅲ. 채권시장 주요일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3		14		15		16		17	
		Wash 연준 의장(중립, I) 의회 증언		Goodbye 시카고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미국 연준 Beige Book		한국 휴장(제한일) 미국 연준 Black Out(-7/31)	
		(미국) 6월 NFB 중소기업 낙관지수 (전월: 95.3, 전년: 98.6) 6월 CPI, Core CPI (CPI 전월: 0.5%, 전년: 4.2%) (Core 전월: 0.2%, 전년: 2.9%)		(미국) 7월 뉴욕 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전월: 5.7, 전년: 3.1) 6월 PPI (전월: 1.1%, 전년: 6.5%)		(미국) 7월 필라델피아 연은 업황전망 (전월: 10.3, 전년: 11.4) 6월 소매판매 (전월: 0.9%, 전년: 6.9%)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전월: 35.0, 전년: 33.0) 6월 미결주택판매 (전월: 3.8%, 전년: 2.1%)		(미국) 6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 1.3%, 전년: 11.2%) (수입 전월: 1.9%, 전년: 6.7%) 6월 주택착공 (전월: -15.4%, 전년: -8.7%) 6월 산업생산 (전월: 0.1%, 전년: 1.7%) 7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잠정) (전월: 49.5, 전년: 61.7)	
		(중국) 6월 수출입(위안화) (수출 전월: 4.3%, 전년: 13.8%) (수입 전월: -1.7%, 전년: 21.5%)		(한국) 6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 0.3%, 전년: 46.9%) (수입 전월: -0.3%, 전년: 24.8%) 6월 실업률 (전월: 2.8%, 전년: 2.7%) 5월 M2 통화공급 (전월: 0.6%, 전년: 5.7%)				(유로존) 6월 CPI, Core CPI (CPI 전월: 0.1%, 전년: 3.2%) (Core 전월: 0.3%, 전년: 2.6%)	
				(유로존) 5월 산업생산 (전월: 0.1%, 전년: 0.3%)					
				(중국) 2분기 GDP (전분기: 1.3%, 전년: 5.0%) 6월 소매판매 (전월: -0.4%, 전년: -0.6%) 6월 산업생산 (전월: 0.4%, 전년: 4.5%)					
국고	3년 입찰 3조 3,000억원	국고		국고		국고		국고	50년 입찰 8,000억원
통안	3개월 입찰 6,000억원	통안	만기 5,000억원	통안	1년 입찰 7,000억원	통안		통안	
은행	만기 4,400억원	은행	만기 1,400억원	은행	만기 1조 2,200억원	은행	만기 1,200억원	은행	만기 4,300억원
카드	만기 1,100억원	카드	만기 1,100억원	카드	만기 1,800억원	카드	만기 1,700억원	카드	만기 1,300억원
회사	만기 4,100억원	회사	만기 120억원	회사	만기 700억원	회사	만기 8,530억원	회사	만기 3,470억원
20		21		22		23		24	
일본 휴장(바다의 날)		(유로존) 7월 ZEW 경기전망지수 (전월 9.5, 전년 36.1)		(한국) 6월 PPI (전월: 0.8%, 전년: 8.5%)		유로존 ECB Governing Council Meeting (한국) 2분기 GDP(속보) (전분기: 1.8%, 전년: 3.8%) (미국) 20년 국채 입찰(Reopening) (4.93%, 간접: 71.6%, 응찰률: 2.75배) 6월 시카고 연은 연방 국가활동지수 (전월: -0.10, 전년: -0.07)		(미국) 7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전월: 11.0, 전년: 1.0) 6월 신규주택판매 (전월: -7.3%, 전년: -6.8%) 6월 건축허가 (전월: -0.9%, 전년: -0.4%)	
국고	5년 입찰 2조 8,000억원	국고	20년 입찰 4,000억원	국고		국고		국고	
통안	3개월 입찰 6,000억원	통안	만기 5,000억원	통안		통안		통안	
은행	만기 1조 5,200억원	은행	만기 9,500억원	은행	만기 3,700억원	은행	만기 3,000억원	은행	만기 1조 4,500억원
카드	만기 1,100억원	카드	만기 300억원	카드	만기 1,100억원	카드	만기 500억원	카드	만기 2,100억원
회사		회사		회사	만기 700억원	회사	만기 3,166억원	회사	만기 5,310억원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